

韓國의 寺址

현황조사 보고서

전라남도 1

2011
上



일러두기

- 01 본 보고서는 광주, 부산, 제주, 전남지역 내 寺址의 2011년도 당시 현황을 조사한 내용이다. 보고서 내 기록된 '寺址', '寺域'의 개념은 시간적으로 한국전쟁 이전까지 존속했던 사찰의 유허지 중 지표 상 유물산포지 구역을 중심으로 잔존 유구와 지형을 고려한 공간적 개념이며, 불교 건축에서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을 포함한 협의적 의미의 사찰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광의적 의미에 포함되는 寺田이나 기타 공간에 대해서는 확인 또는 추정 가능한 경우에만 조사하였다.
- 02 각 시·군과 조사지역 정렬 순서는 가나다순이다.
- 03 조사건수 분량으로 전라남도 지역을 上, 下卷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은 下卷에 수록한다. 이 중 부산광역시는 기장군의 사지 수량에 의해 별도 구분하고, 여타 구는 함께 포함하였다.
- 04 보고서 내 수록 지도는 (주)ilmssoft가 제조하여 SKtelecom에서 공급하는 Geovision 랜드맵 Professional(대한측량협회 심사필 제2010-019호)의 자료를 편집한 것이며, 도면 내 별도의 방위표가 없는 한 圖北을 기본으로 한다.
- 05 조사구역 좌표 측량은 WGS84계로 운용되는 Garmin社의 Oregon300과 MiTAC Digital社의 Magellan eXplorist610을 이용하였다.
- 06 사지 명칭은 寺名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法定地名으로 표기한다. 기존에 조사된 경우 당시 보고된 명칭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지명을 선두에 첨가한다. 동일지명인 경우 말미에 번호를 부가한다. (예 : 황금동고길사지(행정지명 골약동) / 초남리사지1, 초남리사지2)
- 07 본문 내 유물사진은 기와류를 중심으로 토기류와 자기류 등을 촬영하였고 배치 순서는 제작시기가 빠른 순으로 左上에서 右下 방향으로 배치하였다. 일부 사진은 현지상황으로 임의적 배치 후 촬영된 것도 있다.
- 08 소재문화재 중 지정문화재의 명칭은 문화재청 등록명칭을 사용하였고, 연혁에 수록된 사료는 가급적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 원문 확인은 한국고전번역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등에서 제공하는 원문 DB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 09 정리표 내 유형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1-3유형까지는 결과표를 첨가한 현황기록을 수록한다. 또한 4유형과 5유형 및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조사가 불가능했던 곳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록의 별표에 현황을 수록한다.
 - 1유형 : 해당 부지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지
 - 2유형 : 사지 내 지정된 문화재가 소재하거나 소재했던 사지
 - 3유형 :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지
 - 4유형 : 기존조사에서 사지로 보고되었지만 특정 원인으로 인해 현재 확인되지 않는 사지
 - 5유형 : 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지에 소재했던 문화재와 조선시대 이전에 폐사된 후 일제강점기에 중창되어 현재까지 이르는 사찰.
- 10 결과표 내 식생유구영향도와 전체 유구상태에 대한 분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식생유구영향도
 - 높음 : 유구 전반이 식생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구가 영향 받는 경우
 - 보통 : 유구 전반이 식생과 관련된 지형적 원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유구가 영향 받는 경우
 - 낮음 : 유구 전반에 식생이 분포되어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유구 전반에 식생 군락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전체유구상태
 - 양호 : 유구 잔존 상태가 양호하여 사역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 보통 : 유구가 일부 잔존하여 원형 추정은 가능하나 전체적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 불량 :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유구가 훼손되어 원형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전라남도

강진군	上 · 009
고흥군	上 · 063
곡성군	上 · 119
광양시	上 · 199
구례군	上 · 271
나주시	上 · 329
담양군	上 · 377
무안군	上 · 453
보성군	上 · 465
순천시	上 · 527
신안군	上 · 709
여수시	上 · 719
영광군	上 · 741
영암군	上 · 763
완도군	上 · 841
장성군	下 · 009
장흥군	下 · 067
진도군	下 · 157
함평군	下 · 183
해남군	下 · 229
화순군	下 · 263

광주광역시

광산구	下 · 357
남구	下 · 413
동구	下 · 421
북구	下 · 443
서구	下 · 46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下 · 477
제주시	下 · 521

부산광역시

강서구	下 · 591
남구	下 · 591
북구	下 · 591
기장군	下 · 601

부록

조사결과표	下 · 617
식생연구	下 · 863

조사개요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재보호기금의 일환으로 “사지(폐사지) 현황조사 사업(이후 사지 조사사업)”을 2010년부터 착수하였다. 최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현황조사에 이어 2차년도인 2011년에는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전라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사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조사 경과에 대해 분기마다 실시하던 자문회의는 1회를 줄여 3회를 개최하였다. 시기와 내용은 1분기 착수회의, 2분기 현장점검을 겸한 주요사지 현장회의, 4분기 결과보고 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3분기에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지를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들과의 워크숍과 현장점검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중 워크숍은 2010년에 실시한 ‘사지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에 대한 고민을 담아 학술세미나의 연속작업으로 일선에서 사지의 보존과 관련된 일을 직접 담당하는 각 시·도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것이었다.

2011년도 조사는 1월과 2월에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필요한 목록을 검토하고 2월 하순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하였다. 사지 조사수량은 2010년에 작성한 『한국사지총람』에 수록된 총 67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문헌조사로 조사가 마무리된 곳은 116개소이며, 현장조사까지 진행된 사지는 총 556개소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조사 결과 44개소가 증가하여 총 600개소가 현장조사 되었고, 그 중 보고서에 현황이 수록된 사지는 총 529개소이다. 조사 예상건수와 시행건수에 차이가 발생했던 이유는 지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과정에서 새로운 사지를 안내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지 주변에 추가로 사지가 발견되는 경우, 사지총람의 작성 이후 추가적으로 문헌조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사지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고도 현황 기술이 어려웠던 사지는 71개이다. 이는 이동된 소재문화재의 원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경우, 뒤바뀐 지형이나 밀림화된 현장조건, 기초사의 오류나 부족 등으로 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현장의 여건상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통제되어 조사자체를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 등으로 조사를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지만 부득이 보고서에 실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별도로 부록에 정리, 수록하여 향후 학술자료로써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조사방법은 작년과 같이 매장문화재 조사방법 중 지표조사 방식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사지의 운영시기 추정에서 중요한 편년 자료로써 활용한 중요 기와편에 대해서는 3D스캔과 탁본을 실시하여 학술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지의 보존환경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식생조사는 개별 사지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적으로 중요한 월출산, 무등산, 조계산 3곳의 산을 중심으로 보존환경 변화에 참고가 되도록 별도의 고찰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고찰을 통해 급격한 기후변화와 移村현상과 같은 생활환경 변화를 통해 산속의 小路가 없어지고, 벌목과 산중 경작의 감소 등으로 밀림화가 가속되면서 식생환경이 사지보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로 대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의 정리는 2010년과 같이 종합결과표를 작성하였으며, 토지의 소유관계는 크게 국유와 사유로만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각 사지의 원고에는 현황도를 마련하여 사지의 현 위치와 범위를 표시하였으며, 주요 사지의 경우 측량을 통해 유구의 현황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중요 문화재가 남아 있는 사지나 중요 사지의 경우 현재의 주변 환경을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항공촬영을 실시하였다. 사지의 위치정보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여 좌표와 고도를 조사·기록하였으며, 검토용 프로그램은 구글 어스(Google Earth)를 활용하였다.

창건과 증창, 폐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官撰 및 私撰 지리지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개인 문집 등에 수록된 기문에도 사찰의 創廢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활용하였다. 그리고 근래에 발간된 보고서들은 직접 확인하여 참고한 경우에 한해서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끝으로 현장조사에 도움을 주신 송광사 박물관장 고경스님, 조계산 연구소장 김배선 선생님, 강진군 문화재연구소장 양광식 선생님, 마지막으로 월출산에서 만난 민간 마애불연구가이신 이홍식 선생님께 지면으로나마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조사단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하였다. 자문위원회와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문위원	김봉건(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문영빈(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좌교수) 장용철(문화복지연대 공동대표) 최인선(순천대학교 교수) 최응천(동국대학교 교수) 연 응(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소장) 양정석(수원대학교 교수) 김철주(문화재청 전문위원) 손영문(문화재청 전문위원)	조사단장 부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미등(연제영,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최태선(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박상준(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실장) 홍병화(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팀장) 한옥빈, 도윤수 (이상 불교문화재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현수, 박영민, 안선우, 황대곤, 정인기, 박효원, 조민수, 박광현, 이소연, 김현범, 홍희택 (이상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
행정지원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강경환(前 보존정책과장) 김원기(現 보존정책과장) 차금용(사무관) 여규철(前 주무관) 조현수(現 주무관)	조사보조원 보조원	이문행, 박왕희 (이상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이정희(경북대학교 조경학과 학부생) 김준용, 이종호(이상 인하대학교 건축학부생)